

인사교류대상자 30여명과 함께 만찬 중 말씀

위기는 기회입니다. 도약의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걱정들 되시죠? 저도 걱정됩니다. 새로운 시험을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장래가 명확히 보장되어있지 않은 벤처기업에 투자해 놓은 기분입니다. 새로운 사업에 투자한 기분입니다. 성공할 수도 있고 이런 저런 부작용만 많아서 원망만 들을 수도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좋은 기회를 선택한 것 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기 나름입니다. 자의반 타의반으로 선택한 것인데 여러분은 스스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 내고 국가에도 새로운 기회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성공하기 바랍니다. 위기는 기회입니다. 여러분은 고위공무원단 제1기생이 된 것입니다. 많은 후배가 여러분을 뒤따를 것이고 지켜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범적으로 성공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어제 국무위원들과 북악산을 등산한 후 식사를 하면서 다이나믹 코리아를 얘기했는데 너무 혼한 말이었지만 다른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그동안 개인적으로 걸어온 길은 변화의 길이라고 표현하기에는 모자란 것 같습니다. 풍운의 연속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한사람이 사는 길이 좋은 일만 있겠습니까. 비바람 불면 맞기도 하지만, 저는 운이 좋아서 화장한 봄날도 있었고 시원한 가을바람도 맞았습니다.

여러분은 한국이 국운이 있고 여러분도 국운이 융성할 때 풍운을 만났습니

다. 풍운을 헤쳐 나가서 도약의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풍운을 헤쳐 나가 훌륭한 인생의 기록을 남길 것이라고 믿습니다.